

한중 한자 비교를 통한 한국 한자어의 통시적 의미고찰

- 형태소¹⁾ 한자를 중심으로 -

황 신 애*

◁ 목 차 ▷

- I. 들어가기
 - II. 한국 한자어의 분류 및 의미 고찰
 - III. 한국 한자어의 특징 小考
 - IV. 나오기
-

I. 들어가기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등에서 사용된다. 한자는 각국에 오랜 세월 흡수되어 사용되는 동안 각국 고유의 언어문화를 형성하며 공통된 특유의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한국은 한글이 창제되어 정착하기 전까지 한자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특히 한자의 음훈을 빌어 한국어를 표기하는 이른바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이 일찍이 창출되었고, 이것이 확대되어 경서(經書)의 독법에 따른 懸吐, 口訣 표기 및 吏讀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십 수 년간 한자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언어 속에는 여전히 한자어의 사용이 남아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통계에 따르면 한자어의 비율이 57.3%를 차지한다. 한자의 한국적 사용법은 한국문화와 접촉하며 독특한 의미를 지니거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한국 한자어가 생겨나는 動因이 되기도 하는데 한자의 공통된 의미를 배제한 새로운 의미나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형태소는 본문에서 사용한 '語素'를 의미한다.

용법 창출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문에서는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한자 가운데 특히 한중 한자를 비교하여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의미와 용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 속에 녹아있는 한국 한자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성된 독창적 한자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중 한자 비교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형태론에 치중하여 단순히 한자어의 형식 구조를 비교하거나, 공시적 각도에서 한중 한자어의 표면적 의미차이를 논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의 연구형태를 탈피하여 한자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어의 비교가 아닌 語素¹⁾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한자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는 表意문자에 속하며 한 음절로 한 語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어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語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語素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범용되는 한자의 의미로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語素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어에는 없거나 사용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은 한중 한자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선 표준 중국어 즉 '普通話'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방언은 차치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한자어의 사용상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통시적 각도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을 일러둔다.

II. 한국 한자어의 분류 및 의미 고찰

본문에서 한국 한자어라 함은 중국어에는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우선 한중 한자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자를 추출한 뒤 이를 다시 일본 한자어와 비교하여 일본에도 그 의미가 사용되지 않으면 한국 한자어로 구분하였다.²⁾

1) 音義가 결합된 最小 언어 단위.

2) 한자의 의미가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경우, 한국문헌에 19세기까지 출현하지 않으나, 일본문헌에 19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일본에서

한중 한자의 의미 비교를 통해 중국어³⁾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의미와 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한국에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로 ‘便’과 ‘客’을 들 수 있다.

1) 便

‘便’은 《說文解字》(이하 《說文》이라 함)에 “安也. 人有不便, 更之.”(안정되고 편안하다. 사람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꾼다.)라 하여 “안정되고 편안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便’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語素의 의미⁴⁾를 살펴보면 크게 ‘편리하다’, ‘편리한 때 또는 기회’, ‘정식이 아닌, 간단한’, ‘대소변’, ‘문득, 즉시, 곧’의 공통의미를 갖는다. 또한 ‘便’은 이러한 의미와 관련 있는 단어의 語素로도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便’은 의존명사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하는 말’을 의미한다. 이들 의미항은 중국어에는 보이지 않는데 한국 문헌에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語素 ‘便’이 자주 보인다. 한국어에서 ‘便’은 위에 나열한 의미항 중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과 ‘방향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항이 자주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⁵⁾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오직 婦人의 남편 섬교문 삼가디 아니호미 문흐리며(但婦之事夫는 不可不謹이며)(《內訓》-1474)

기원한 한자어로 간주하고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일러둔다.

- 3) 본문에서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 즉 ‘普通話’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둔다.
- 4) 해당 한자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는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국어는 《漢語大詞典》을 활용함.
- 5) 마지막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함을 나타내는 의미항’은 주로 ‘-은/는 편이다’(예: 그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라는 구성으로 쓰여 다른 語素와 결합되기보다는 단독 語素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본문에서는 우선 논의치 않기로 한다.

- (오직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예2] 녀편은 남편의 長幼로써 차례하고 《家禮諺解》-1632)
(여자(아내)는 남자(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르고)
- [예3] 장부[**남편**]를 룡만하고 혐증치 말며 《敬信錄諺釋》-1796)
(남편을 凌慢하고(엿신여기고) 嫌憎하지(미워하지) 말며)
- [예4] 先妣는 祠堂에 든 **녀편**들히라 《內訓》-1474)
(先妣는 祠堂에 들어간(모셔진) 여자들이다.)
- [예5] 모든 어디신 女**녀편**아 므스글 求하느뇨(諸賢女아 有何所須오) 《蒙山和尚六道普說》-1567)
(모든 어진 여자들아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 [예6] 일흠으로편 어딘 **녀편**이라 일컫고(以名稱賢婦 | 오) 《女訓諺解》-1658)
(이름으로는 어진 부인(賢婦)라 칭하고)
- [예7] 원형을 혼가지로 하자시고 드리고 가시니 너 **녀편**너 형식이 예문의 어
곶가 녀녀하디 《閑中錄》-18C)
(園行을 함께 하자 하시고 데리고 가시니 나의 여자(로서의) 行色이
예절에 어긋날까 염려하였는데)
- [예8] **녀편**네라는 거슨 사나희보다 약하니 《獨立新聞》-1896)
(여지라는 것은 남자보다 약하니)
- [예9] **왼편**은 일흠은 금관이오 **올른편**은 일흠은 옥회니 《馬經抄集諺解》-17C)
(왼쪽은 이름이 금관이고 오른쪽은 이름이 옥호인데)
- [예10] 또 병하느 집의 드러갈 제 거름을 조용히 하고 **왼편**으로 드러가되 《辟
癘新方》-1653)
(또 병을 앓는 집에 들어갈 때 걸음을 조용히 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되)
- [예11] “네 더 有名하 칼 푸즈를 문느냐” “큰 거리 四牌樓 **동편**에 張黑子 | 이
시니 만든 칼이 2장 도하...” 《朴通事新釋諺解》-1765)
(“네가 저 유명한 칼 만드는 가게를 문느냐?” “큰 거리에 있는 四牌樓
동쪽에 張黑子란 사람(의 가게)이 있는데 만든 칼이 가장 좋아서...”)
- [예12] 만일 서반아 바세-논아 항구에서 빅을 타고 서편으로 향하야 몇 달이던
지 가거드면 《獨立新聞》-1896)
(만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해서 몇 달이든
지 간다면)
- [예13] 小人이 遼東城 안 樓閣 **북편** 거리 東掖회 사노라 《清語老乞大》-18C)
- [예14] 한양만 브라고 쥬야쥬슈홀 분이러니 금일도 **북편**을 창망하고 슬픈 눈물
을 금치 못하고 누엇더니 《남원고사》-1864)
(漢陽만 바라보고 晝夜祝手할 뿐이었는데 今日도 北便을 悵望하고 슬

픈 눈물을 찢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한국어에서 ‘便’은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쪽’이나 ‘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便’은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데, [예1]~[예3]을 보면 ‘남편(男便)’에서 ‘便’은 ‘쪽’ 또는 ‘측’의 의미로 ‘男便’은 본래 ‘남자 쪽(측)’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男便’은 ‘혼인을 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를 그 여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男’과 ‘便’ 두 語素가 결합하여 생겨난 어휘로 볼 수 있다. ‘女便’은 ‘男便’의 상대되는 말로 본래 ‘여자 쪽(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4], [예5], [예7]에서 ‘녀편’은 모두 ‘여자 쪽’ 즉 ‘여자를 일컫는 말’로 볼 수 있다. [예7]에서 ‘녀편’은 아내 또는 부인을 일컫는 말로 ‘남편’의 상대어로 볼 수 있다. [예8]의 ‘여편네’는 ‘여편’과 複數를 나타내는 접사 ‘~네’가 결합하여 ‘여자의 복수형’으로 ‘여자들의’ 의미를 지닌다. ‘여편네’는 ‘여자들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현대국어에서는 결혼한 여자나 자기 아내를 낮잡아 이를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해 ‘여편네’는 ‘女便’에서 파생된 어휘로 처음에는 ‘여자들’을 나타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다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언어가치의 감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9]~[예14]의 예문에 보이는 ‘왼편’, ‘옳편(오른편)’, ‘동편’, ‘서편’, ‘북편/북편’에 사용된 ‘便’은 방향을 나타내는 語素로 볼 수 있다. 普通話에는 ‘便’이 방향을 나타내는 語素로 사용된 용례가 보이지 않으나 지방 방언에는 일부 용례가 보인다. 粵語에 보면 ‘便’이 ‘邊; 面(방면, 쪽, 측)’의 의미를 지니는데, 예를 들면 ‘四便都有山.’, ‘東便有條河’이다.⁶⁾ 한자 ‘便’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중국 방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선후관계는 현재로서는 확정 지을 수 없으나 ‘便’의 어원적 의미로 봐서는 ‘방면, 쪽, 측’에 사용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국어에서 ‘남편’의 경우 원래는 고유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古圖書에서 ‘남편’이 한자로 사용된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유어였던 ‘남편’이 사람들이 한자로 착각하여 ‘便’을 붙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6) 《方言大詞典》4244쪽.

2) 客

《說文》에 “寄也.”라 하여 ‘기거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客’은 중국어에서 ‘손님’, ‘여객’, ‘기거하다’, ‘객관적인’ 등의 의미로 쓰인다. 국어에 사용되는 ‘객’은 중국어와 의미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단어 앞에 붙어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뜻을 나타낸다.

[예15] 객설스럽다 (《한불자언》-1880)

[예16] 다른 사람 잘 못 듯게 객설하야 (《인과곡》-1796)

(다른 사람이 잘 듣지 못하게 객설을 하여)

[예15]를 보면 ‘객설스럽다(객설스럽다)’라 하여 쓸데없고 실없는 말이 많음을 나타낸다. [예16] 역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여 객쩍은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客’은 국어에서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의미로 ‘객담하다’, ‘객론하다’, ‘객소리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2. 문화적 의미가 가미된 한자어

한자의 의미에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된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1) 函

‘函’은 《說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詩經·周頌》에 “播厥百穀, 實函斯活.”(저 백곡을 파종하니 열매가 (물) 머금고 이에 나오도다.)가 보이는데, 여기서 ‘函’은 ‘포함하다, 함유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函’은 파생되어 ‘작은 상자, 함’의 의미를 지니는데, 《燕丹子》卷下7에 “遂函盛於期首, 與燕督亢地圖以獻秦.”(결국 번오기의 머리를 담은 상자와 연의 독항 지도를 진에게 바치다.)이라 하여 ‘상자’의 의미로 사

7) 작자미상으로 漢代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됨.

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函’은 ‘상자’의 의미 외에 결혼문화풍습과 관련된 단어로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를 의미한다. 《혼몽자회》(1527)와 《신증유합》(1576)에 ‘函, 함함’이란 말이 보인다. 관련 어휘로 ‘함진아비’가 있다.

2) 契

‘契’는 《說文》에 “大約也.”라 하였는데, 徐鍇 《說文解字繫傳》(이하 《繫傳》이라 함)에 보면 《周禮》 鄭玄注: “大約, 邦國約也.”라 하여 ‘국가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契’는 원래 약속을 뜻하는 말로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 증서나 문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한국 한자어 ‘契’는 이로부터 ‘모임’의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의미한다. 《한불자언》(1880)에 ‘계회하다(계 모임을 하다)’와 ‘洞契(동네의 일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이 만든 계)’가 보인다. 관련 어휘로 ‘낙찰계’, ‘상포계’, ‘친목계’ 등이 있다.

3) 柶

‘柶’는 《說文》에 “《禮》有柶. 柶, 匕也.”라 하여 ‘숟가락’을 의미한다. 《儀禮·士冠禮》 鄭玄注: “柶, 狀如匕, 以角爲之者, 欲滑也.” 《段注》: “蓋常用器曰匕, 禮器曰柶.”라 하여, 《儀禮》 鄭玄注에 보면 ‘柶’는 ‘모양이 숟가락과 같고 뿔로써 만든 것은 미끄럽게 하고자 함이다.’라 하였고, 《段注》에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은 ‘匕’로, 제사 때 쓰는 그릇은 ‘柶’로 설명하고 있다. ‘柶’는 중국어에서 짐승의 뿔로 만든 음식물을 뜯 때 사용되는 숟가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柶’는 ‘윷’을 의미하는데, ‘윷’은 ‘작고 둥근 나무쪽 두 개를 반으로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명절에 여러 사람이 편을 짜 말판에 말을 써 가면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이다. ‘柶’는 대개 ‘擲’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윷놀이(擲柶)’의 의미를 지닌다.

[예17] 여러가지 다 던지고 규중의 여즈임너 윷노름이 제일식 **척소회**을 붓친다

고 일시의 공논홀제(척사대회 승부가)

(여러 가지 다 던지고 규중(閩中)의 여자님네 윗놀이가 제일일세. 척사회(擲柶會)를 붙인다고 일시에 공론(公論)할 제)

[예18] 今俗歲朝. 小兒截荊條. 俗名懋伊剖爲四枚. 適相拋擲. 四枚俱覆爲上采. 俱仰爲次. 三仰又其次. 二仰至于—仰. 爲失采矣. …중략… 按字書. 柶. 角匙也. 今之人豈從木謂四木也. (柶木戲)

(이제 풍속에 정월초하루 아이들이 가시나무 나뭇가지를 잘라 만든다. 일명 '懋伊'라 칭하는데, 쪼개어 네 개를 만들고 서로 번갈아 던져 네 개가 모두 엎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 다음으로 좋은 것이다. 세 개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 다음이고 두 개, 한 개의 순으로 지는 것이다. 중략. 자서에 따르면 '柶'는 뿔로 만든 순가락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었다하여 '四木'이라 일컫는다.)

[예17] '척사대회 승부가'는 저자와 창작 연대가 미상으로, 예문에서 '척사회(擲柶會)'는 '윗놀이의 모임'을 의미한다. [예18]은 조선후기의 문인 이학규(1770년~1835년)의 글로 윗놀이의 놀이방식 및 명칭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柶'의 관련 어휘로는 '척사대회'가 있다.

4) 淸

'淸'은 《說文》에 "(月+良)也. 澗水之兒."라 하여 '물이 투명하고 맑은 모습'을 의미한다. 《詩經·鄭風》에 "溱與洧, 瀏其淸矣."(진수와 유수는 맑네.)라 하여 흐르는 물이 맑고 투명한 모습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淸'은 '꿀'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9] 姜栢年, 以備邊司言啓曰, 傳教矣, 柑子入送, 勢難及期, 而代以白淸, 彼喜有加, 則依此定式, 似當, 令該曹酌量定數, 成熟果物, 一時付送節使之行,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인조 25년)-1647)

(勅使에게 柑橘을 보낼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말하니 白淸을 보내면 攝政王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備邊司로 하여금 定奪하여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예20] 洪葳, 以敬慕殿參奉, 以入番宗室意啓曰, 殯殿次知中使尹完, 次知傳教內, 魂殿·山陵三年內, 以何色淸蜜進用乎事, 傳教矣. 己丑年魂殿·

山陵餅果, 例用黃蜜, 而水正果清蜜追清, 則擇其黃清中, 品好者進用矣, 敢啓. 傳曰, 知道黃清, 色濁味酸, 不合祭用, 以白清封進事, 分付. (承政院日記-1659)
(魂殿과 山陵에 黃清蜜을 進用한 전례를 보고하는 敬慕殿參奉의 계)

[예19]를 보면 柑子 대신 白清과 익은 과일을 節使 편에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로 ‘白清’은 빛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꿀을 의미한다. [예20]을 보면 魂殿과 山陵에 黃清蜜을 進用한 전례를 보고하는 계로, ‘黃清’은 벌통에서 떠낸 그대로의 꿀로 ‘黃蜜’과 동의어를 이룬다.

현대에 꿀의 의미를 지닌 ‘清’과 관련한 어휘로는 ‘조청(造清)’, ‘석청(石清)’이 많이 사용되며, 이외 ‘백청(白清)’, ‘황청(黃清)’, ‘숙청(熟清)’, ‘생청(生清)’ 등이 있다.

5) 藥

‘藥’은 《說文》에 “治病艸.”라 하여 ‘병을 고치는 풀’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 ‘藥’은 《墨子·号令》에 “傷甚者令歸治病家善養, 予医給藥, 賜酒日二升、肉二斤, 令吏數行間, 視病有瘳, 輒造事上.”이라 하고, 《禮記·曲禮下》에 “君有疾飲藥, 臣先嘗之. 親有疾飲藥, 子先嘗之.”라 하여 모두 ‘병을 치료하는 약’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 ‘藥’은 ‘꿀’의 의미로도 쓰인다.

- [예21] 잉도편 향설고 계강과 건시단즈 **약식** 동과증 토란병(櫻桃餅 香雪饅 桂薑果 乾柿團 餈 藥食 冬瓜蒸 土卵餅) (《閨閣叢書》-1869)
- [예22] 선왕 **약밥**의 티독하여 승하호오시고 (《癸丑日記》-17C)
- [예23] 명절의 쓰던 시식언 정월 망일언 **약밥**이요 한식언 썩떡이요 삼월 삼일언 화전병이요 (《女小學》-18C)
- [예24] 와서 친구의 집에서 류흐는디 흐로는 주인이 **약밥** 혼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먹으라 하니 (大韓每日申報-1904)
- [예25] 기름에 지진 꿀 **藥果**도 아니 먹는 날을 冷水에 슬문 돌 饅頭를 (가곡 원류-1876)
- [예26] **약과 藥果** 油蜜果 (국한회어-1895)

[예21]~[예24]의 ‘藥食’ 또는 ‘약밥(藥밥)’은 ‘참쌀을 물에 불리어 시루에 찐 뒤에 꿀 또는 흑설탕, 참기름, 대추, 진간장, 밤, 황밤 따위를 넣고 다시 시루에 찐 밥’을 의미한다. [예25]~[예26]의 ‘藥果’는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다. 위 예문에서 ‘藥食’, ‘藥밥’, ‘藥果’는 모두 꿀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이곳에서 ‘藥’은 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藥’이 한국어에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색채인 ‘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6) 太

‘太’는 ‘泰’의 古字이다. ‘泰’는 《說文》 段注에 보면 “凡言大而以爲形容未盡，則作太.”라 하여 ‘커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太’는 콩을 의미하는데 《한불자언》에 그 용례가 보인다.

[예27] 불콩 赤太 (《한불자언》-1880)

[예28] 청태 靑太 (《한불자언》-1880)

[예29] 콩 太 (《한불자언》-1880)

[예27]~[예29]를 보면 ‘太’가 콩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붉은콩은 ‘赤太’로 푸른콩은 ‘靑太’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 방언에는 검은콩에 속하는 서리태, 서목태((鼠目太/쥐눈이콩), 흑태 등이 자주 사용된다. 콩의 의미를 지니는 ‘太’는 중국에서 의미가 전해졌다가보다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吐

‘吐’는 《說文》에 “寫也.”라 하여 ‘토하다, 뱉다’의 의미를 지닌다. 《後漢書·方術傳下·華佗》에 “太守果大怒，令人追殺佗，不及，因瞋恚，吐黑血數升而愈.”(태수가 과연 크게 노해 사람들에게 화타를 쫓아가 죽이라 하였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인하여 눈을 부릅뜨고 성내니 검은 피 몇 되를 토하고 낫게 되었다.)라 하여 ‘吐’는 ‘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어에서 ‘吐’는 ‘토하다’의 의미 외에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을 일컫는다.

[예30] 侍講院啓曰, 上下番皆有故. 中략. 非但無他替直之員, 校正·懸吐, 亦未免孤陋之患. 請未差之員, 明日政差出.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인조 12년)-1634년)
(替直할 인원도 없고 校正과 懸吐도 하기 어려우므로 未差된 인원을 明日政에서 差出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예30]의 ‘懸吐’에서 ‘吐’는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으로 ‘懸吐’는 한문에 토를 다는 일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吐’는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이란 의미에서 파생되어 ‘어떤 말 끝에 그 말에 대하여 덧붙여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말끝마다 토를 달다’, ‘남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다’, ‘정부나 당국자의 일이면 사사건건 토를 달고 나서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다.’ 등을 들 수 있다.

8) 周

《說文》에 “密也.”라 하여, ‘주도면밀하다. 치밀하다. 꼼꼼하다. 빈틈없다.’의 의미를 지닌다.《管子·九守》에 “人主不可不周, 人主不周, 則群臣下亂.”(군주는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주가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여러 신하가 아래에서 난을 일으킨다.)이라 하고, 尹知章注에 “周, 謂謹密也.”라 하여 ‘周’는 ‘신중하고 치밀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孫子·謀攻》에 보면 “夫將者, 國之輔也. 輔周則國必強, 輔隙則國必弱.(무릇 장군이란 군주의 보좌역이다. 장군이 군주를 보좌하는데 치밀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대해지고, 보좌하는데 주도면밀하지 않고 빈틈이 많다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이라 하였다. ‘周’는 파생되어 ‘두루, 전반적인’의 의미와 ‘둘레, 주위’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 ‘周’의 의미는 중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周鉢’의 ‘周’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周鉢’은 ‘늦쇠로 만든 밥그릇’을 의미한다. ‘周鉢’에서 ‘鉢’은 ‘밥그릇’을 의미한다. 기원적으로 ‘鑿鉢’의 한자음 ‘듀발’이 ‘듀발 > 주발 > 주발’이 되었는데

데, 후에 ‘鑪’의 한자음이 ‘주(〈 鈞 〉)’가 아닌 ‘유’로 읽히게 됨에 따라 ‘주발’의 ‘주’를 발음이 같은 ‘周’로 쓰게 된 것이다.

[예31] 鑪鐵 鈞 鐵 鈞 (동문유해-1748)

[예32] 鑪 鈞 (광재물보-18C)/ 鈞 器 皿 (한불자언-1880)

[예33] 大盥 큰사발 銅碗 **鈞**발 螺螄杯 소라잔 小碟子 쇼접시 (몽어유해보-1790)

한국어에서 ‘周’에 ‘鈞’의 의미항을 추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周鉢’에서 ‘周’가 일반적인 한자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성씨나 사람 뒤에 붙는 한자어

일부 한자어는 성씨나 사람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지칭하거나 출신지역 또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다.

1) 哥

《說文》에 “聲也. 古文以爲(言+哥)字.”라 하여 ‘노래 소리’를 의미한다. 《段注》에 “《漢書》多用哥爲歌(言+哥).” “今呼兄爲哥.”(《漢書》에 ‘哥’를 ‘歌’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형을 ‘哥’로 부른다.)라 하여 ‘哥’는 ‘노래’의 의미와 ‘형’의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예34] 前漢有虞公者, 善哥. (《宋書·樂之一》)

(전한에 우공이란 사람은 노래를 잘하였다.)

[예35] “這位安老爺本是弟兄兩個, 大哥早年去世.”(《儿女英雄傳·第一回》)

(이 안노인은 본래 형제 둘뿐이었는데, 큰형이 오래전에 죽었다.)

[예34]에서 ‘哥’는 노래의 의미로 쓰였고, [예35]의 ‘哥’는 ‘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哥’는 《한어대사전》에 ‘성씨’와 관련된 의미항은 보이지 않는데, 한국어에서는 성(姓)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 또는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 [예36] 내 姓이 張개라 (老乞大諺解-1670)
 ((내 姓이 張가이다.))
 [예37] 내 姓은 王哥라 네 집이 어디셔 사는다 (淸語老乞大-18C)
 [예38] 姓이 李哥니 三寸의게 난 四寸兄이오 (淸語老乞大-18C)
 [예39] 혼나흔 姓이 趙哥니 내 이웃집 벗이라 (淸語老乞大-18C)
 [예40] 김가(金哥)야, 요즘 잘 지내니? (標準國語大辭典)

[예36~예39]의 '王哥, 張哥, 李哥, 趙哥'에서 '哥'는 '그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예40]의 '金哥'는 호칭하는 말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哥'가 성씨나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대중국어에서 넘어와 의미가 전이된 것이 아닌가 싶다. 中國 清代에 '哥'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 사이에서 가깝게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되었다. 清代소설《醒世姻緣傳》에 “如老哥們替人討這廩生名色, 約要多少謝禮?”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여기서 '老哥們'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국어에서는 17~18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哥'가 성씨와 결합해 사용되는 용례가 보이는데, 이는 근대중국어의 '동년배 남자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에서 파생되어 '성씨 뒤에 붙여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다.

2) 宅

《說文》에 “所託也.”라 하여 '(몸을) 의탁하는 곳'을 의미한다. 파생되어 '거주하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書·盤庚上》에 “我王來, 既愛宅于茲.”(우리 선왕께서 오시어 이미 이곳에 거주하셨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宅'은 '거주하다'의 의미에서 다시 파생되어 '주택'의 의미를 지닌다. 《孟子·梁惠王上》에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다섯 묘 정도의 주택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라 하였다.

한국어에서 '宅'은 '주택'의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①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예41] 판관**딕** 나와 겨시겨늘 (병자일기-17세기)[예42] 송서방**딕** 약주혀여 와 보고 가고 (병자일기-17세기)[예43] 새**딕** 新婦 (國漢會語-1895)

② (지명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의 뜻을 더하는 말

[예44] 거창**딕**의 잇단 말 듣고 친히 갖다가 묻 어더 오니 (현풍곽씨언간-16C)[예45] 의성**딕**이 다 신이 편치 아녀 겨시다 하니 (현풍곽씨언간-16C)(의성**딕**이 다 몸이 편찮다고 하니)

③ 듣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46] 엇던 사람이 말하기를 **딕**이 팔시름에 저서 그리 분혀여 하시오 **헝고**
(每日新聞-1898)[예47] **딕**답혀되 **딕** 말슴이 무슴 말슴인지 알 수가 업고 (每日新聞-1898)

‘**택(宅)**’은 한국어에서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를 때 사용한다. [예41]~[예43]의 ‘판관**딕**(판관**택**)’, ‘송서방**딕**(송서방**택**)’, ‘새**딕**(새**택**)’은 모두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 볼 수 있다. ‘**택(宅)**’은 또 ‘그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44]~[예45]를 보면 ‘거창**딕**(거창**택**)’과 ‘의성**딕**(의성**택**)’은 거창과 의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시집온 여자를 가리킨다. ‘**택(宅)**’은 또한 듣는 상대방이 대등한 관계이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를 때도 사용된다. [예46]~[예47]에서 ‘**딕(딕)**’은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3) 前

《說文》에 “不行而進謂之(止+舟).”라 하여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능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배에 있을 때 그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에서 ‘前’은 ‘後’의 상대되는 말로 주요의미는 ‘앞(방향이나 시간을 가리킴)’ 또는 ‘앞으로 나아가다’이다.

한국어에서 ‘前’은 ‘~에게’의 의미로, 편지·청첩장 따위에서 받는 사람이나 기관

의 이름 밑에 쓴다.

[예48] 누의님 **전** 상사니 (누님에게 올리는 글) (순천)

[예49] 어마님 **전** 상슬이(어머님께 올리는 글) (현풍곽씨언간-16C)

[예50] 아으님 **전** 상장(아우님께 올리는 글) (현풍곽씨언간-16C)

[예48]~[예50]에 사용된 ‘전(전)’은 ‘앞’의 높임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뒤에 쓰여, ‘~에게’의 의미를 지닌다.

4. 친인척 관련 한자어

한국 한자어 중 몇몇 친인척 관련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사용되거나 형태가 존재한다.

1) 查/頓

‘查’는 《說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廣韻·麻韻》에 보면 “查, 水中浮木.查同.”이라 하여 본래는 ‘뗏목’을 의미한다. ‘查’가 ‘검사하다, 조사하다’의 語素로 사용된 것은 상당히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正字通·木部》에 “查, 俗以查爲考察義, 官司文移曰查, 讀若茶, 後改用察, 查行曰察行, 查盤曰察盤.”(‘查’는 통속적으로 ‘조사하다, 고찰하다’의 의미이다. 소송문서에 ‘查’라 하고, ‘茶’로 읽는다. 후에 ‘察’로 고쳐 ‘查行’을 ‘察行’으로, ‘查盤’을 ‘察盤’이라 한다.)이라 하여 ‘조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紅樓夢·第七十四回》에 “所以大家都查一查, 去疑兒.”(그러므로 모두가 조사하여 의혹을 없애다.)의 예문이 보인다. “頓”은 《說文》에 “(下)[頓]首.”라 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리다’의 의미를 지닌다. 《漢書·東方朔傳》에 “居有頃, 聞上過, 朱儒皆號泣頓首.”(얼마 후 황제가 지나간다는 전언을 듣고 난쟁이들이 모두 울부짖으며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예문이 보인다. ‘頓’은 파생되어 ‘잠시 멈추다’, ‘처리하다’, ‘문득’ 등의 의미로 쓰인다.

한국어에서 ‘查’와 ‘頓’은 함께 쓰여 하나의 語素로 사용되는데,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나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로, 한국 한자어로 볼 수 있다.

- [예51] 사돈짓아버 사돈짓어미 사돈짓아버 사돈짓어피오라비 사돈짓아즈미
(親家公 親家母 親家伯伯 親家舅舅 親家姨姨) (《翻譯老乞大》-1517)
(사돈집아버 사돈집어미 사돈집아저씨 사돈집외삼촌 사돈집아주머니)
- [예52] 오란 조상엿 사돈도 이시며 새로 지은 사돈도 잇느니(有累世之姻 有新締之姻) (《正俗諺解》-1518)
(오래된 조상의 사돈도 있으며 새로 맺은 사돈도 있으니)
- [예53] 親家 사돈 (《譯語類解》-1690)
- [예54] 婚家 사돈 (《譯語類解補》-1775)
- [예55] 結親 사돈하다 (《蒙語類解上》-1790)
- [예56] 異姓 四寸 兄弟와 同姓 六寸 兄弟와 查頓의 겨리와 使喚 奴婢들 다 와서 (《蒙語老乞大》-1790)
(異姓 四寸 兄弟와 同姓 六寸 兄弟와 查頓의 친척과 심부름꾼이나 노비들도 다 와서)
- [예57] 親 겨레 친. 親 사돈 친. 親 스랑 친. 親 갖가을 친. (《주해천자문》-1804)

16C~19C 문헌을 중심으로 보면, 《翻譯老乞大》, 《正俗諺解》, 《譯語類解》, 《蒙語老乞大》, 《註解千字文》 등에 '사돈(查頓)'이란 말이 보인다. [예51]~[예57]을 보면 '사돈집', '사돈', '사돈하다'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돈(查頓)'은 '혼인한 두 집안 사이에서 당사자의 부모들끼리 혹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말이나 또는 그러한 관계'를 이르는 말로 중국어에는 없는 한국 한자어라 하겠다. 관련어휘로 '안사돈', '바깥사돈' 등이 있다.

2) 媿

'媿'는 중국에는 없는 한자이다. 한국어에서 '媿'는 시집이나 남편의 집을 의미하고, 시집과 관계있는 어휘의 語素로 사용된다.

- [예58] 중놈이 접운 스당을 엿어 媿父母의 孝道를 무엇스로 ्ह여갈꼬 (가곡

원류-1876)

(젊은 사당(조선 시대에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와 춤을 파는 여자)을(아내로) 얻어 시부모에게 효도를 무엇으로 하겠는가?)

[예59] 시가 媿家 (국한회어-1895)

[예60] 시누 媿妹 / 시대 媿宅 / 시동생 媿同生 / 시모 媿母 / 시아버지 媿父 / 시부 媿父 / 시집 媿家 / 시부모媿父母와 친부모親父母 (국한회어-1895)

[예61] 식아비 식어미 문머느리를 브리거시든 (內訓-1474)

[예62] 내 모미 번득디 아니커니 엇데 씨곰 식어미 식아비를 拜謁호리오(妾身未分明 何以拜姑嬢) (杜詩)

[예63]大伯 沒식아자비 / 小叔 아으식아자비 / 大姑 沒식누의 / 小姑 아으식누의 (譯語類解補-1775)

[예64] 혼 고을 잇는 사름 도운봉의게 식집간 혼 힘 만의 죽거늘(嫁同郡都雲峰 纔一年 夫死) <續三綱行實圖重刊-烈女-1607>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 都雲峰에게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예58]~[예64]의 ‘媿父母’, ‘媿家’, ‘시누(媿妹)’, ‘시대’, ‘시동생’, ‘시모’, ‘시부’, ‘시집(식집)’, ‘시아비(식아비)’, ‘시어미(식어미)’, ‘시아주버니(식아자비)’, ‘시누이(식누의)’는 모두 ‘媿’를 語素로 갖는 단어들로 ‘시집’과 관계있는 어휘들이다. 정약용의 《雅言覺非·卷三》을 보면, “媿者女字也. 古婦人笄而字. 以稱舅家. 舅曰媿父.”라 하여 ‘媿’는 여자를 가리키고 글자로, 옛날에는 머리를 쪽진 여자(비녀를 꽂은 여자)를 가리키는 글자였다. 그리고 ‘媿’는 ‘舅家’라 하여 ‘시부집’ 즉 ‘시대’를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媿’는 ‘시대’ 또는 ‘시집’과 관련된 어휘를 구성하는 핵심 語素로 造語力이 뛰어나다. 중국어에는 ‘媿’의 한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 고유 한자어로 볼 수 있다.

3) 媿

《說文》에 “兄妻也.”라 하여 ‘형의 부인’을 일컫는다. 《莊子·盜跖》에 “昔者桓公小白殺兄入媿, 而管仲爲臣.”(옛날 환공 소백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들였으나 관중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이라 하여 ‘媿’가 형수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嫂’는 ‘형의 아내’ 뿐 아니라 ‘동생의 아내’를 일컬을 때도 사용한다.

- [예65] 형제兄弟 동싱同生 형수兄嫂 데수弟嫂 문누의 姊 姉 (《倭語類解》-1781)
- [예66] 姆맞 동서 孀즈근 동서 兄嫂형수 弟嫂데수 (광재물보-18C)
- [예67] 제수祭需 제수除授 제수弟嫂 제술製述 제야 除夜 (《국한회어》-1895)
- [예68] 楊貴妃 구경기로 興甫스라 들어가니 弟嫂 나서 迎接호야 이 놈이 楊貴妃 춧노라고 (박홍보가-신재효본-1918)
- [예69] 네 또 그 으의 형이라 제수(弟嫂)의 난안(靛顔)호물 슬피지 아니 호고 (완월회맹연)

[예65]~[예69]를 보면, ‘嫂’는 ‘兄’뿐 아니라 ‘弟’와도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弟嫂(데수/제수/제수)’는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한국어에서 ‘嫂’는 자주 동생을 의미하는 ‘弟’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는 중국어에 없는 造語현상으로 국어에서 ‘嫂’가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아내’ 즉 ‘제수’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계수(季嫂)’,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등의 관련표현이 있다.

4) 媠

《集韻·鹹韻》에 “誦, 誦誦, 語聲, 或作嘯. 東暫作媠.”(‘誦’은 ‘수다스러운 말소리’로 ‘嘯’으로 쓰기도 한다. ‘東暫’⁸⁾은 ‘媠’이라 하였다.)이라 하여 ‘媠’은 ‘수다스러운 말소리’를 의미한다. 중국 문헌에는 ‘媠’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媠’은 ‘오라버니’를 지칭하는데 예문은 다음과 같다.

- [예70] 丈母 妻母 / 岳母 妻母 / 舅子 妻媠 / 娘子 계집 (《譯語類解》-1690)
- [예71] 媠 옷라비 남 / 妹 아으누우 락 (《類合》-1700)
- [예72] 大舅子 大妻媠 / 小舅子 아으妻媠 / 大姨 妻兄 / 小姨 妻弟 (《譯語類解補》-1775)
- [예73] 처남 妻媠 / 동서 同媠 (《倭語類解》-1781)

8) 西晉時期的 문학가이자 문헌학자.

[예74] 처남 妻娒 (《한불자언》-1880)

[예75] 弟 아으 데 / 兄 뭇 형 / 娒오라비 남 / 妹 누의 믈 (《훈몽배운》-1901)

[예71]과 [예75]를 보면, '娒'이 '오라버니'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娒'은 본래 '여자와 같은 향렬의 손위 남자'를 가리켰으나 점차 '여자의 남자형제'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예70], [예73], [예74]에서 '妻娒'은 '아내의 남자형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예72]를 보면 '만처남(만妻娒)'은 '아내의 큰오빠'를 '아우처남(아으妻娒)'은 '아내의 남동생'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娒'은 현대국어에서 '男'으로 사용되는데, '妻男(아내의 남자형제)', '男妹(오빠와 누이동생)' 등과 같은 어휘에 사용된다.

5) 妹

'妹'는 중국어에서 '여동생이나 누이동생'을 의미한다. '妹'는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손아래 여동생'을 지칭하나 '兄'과 결합하여 사용 시 '손위 누이'를 가리킨다.

[예76] 매헌ᄃ다埋獻 매형妹兄 매화梅花 매혼妹婚 매혼ᄃ다賣婚 (《한불자언》-1880)

[예77] 매과媒婆 매형妹兄 뭇화梅花 뭇화포梅花砲 뭇홍지梅紅 (《국한회어》-1895)

[예76]~[예77]의 '妹兄'은 '손위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妹'는 '여동생'이 아닌 '손위 누이'를 가리킨다. 현대국어에서 '妹夫'는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사용되는데, '손위 누이의 남편'을 가리킬 경우 '妹'는 역시 '손위 누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6) 寸

'寸'은 《說文》에 “寸, 十分也. 人手卻一寸, 動脈, 謂之寸口. 從又, 從一.”(‘寸’은 10(分)의 길이이다. 사람의 손에서 1寸을 물러나 맥이 뛰는 곳을 ‘寸口’라고 한다.

‘又’와 ‘一’로 구성되어 있다.)라 하여 ‘길이의 단위’를 나타낸다. 《孟子·離樓下》에 “如中也棄不中，才也棄不才；則賢不肖之相去，其間不能以寸。”(만일 중용의 도를 갖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려두고 가르치지 않으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려두고 길러주지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과 못한 사람과의 거리는 한 치의 차이도 나지 않을 것이다.)이라 하여 ‘寸’은 아주 짧은 길이를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寸’은 친족관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예78] 曹爽의 四寸 아스 文叔의 겨지븐 夏侯文寧의 쓰리러니 (《삼강행실도》-1471)

(曹爽의 四寸 동생인 文叔의 아내는 夏侯文寧의 딸이었는데)

[예79] 竇嬰은 文帝入 皇后入 四寸 오라빅 아드리라 (《內訓》-1474)

(竇嬰은 文帝의 皇后의 四寸 오빠의 아들이다)

[예80] 네 異姓 四寸兄弟어시니(你是舅姑兄弟) (《翻譯老乞大》-1517)

(너희가 성씨가 다른 사촌형제이니)

[예81] 同姓 四寸 兄弟와 異姓 四寸 兄弟 (《蒙語老乞大》-1790)

[예82] 내 姑母의게 난 四寸兄이오 (《清語老乞大》-18C)

[예78]~[예82]의 ‘四寸’은 ‘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을 이르는 말’이다. ‘寸’은 ‘寸數’를 나타내는 말로 ‘三寸(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五寸(부모의 사촌형제 또는 사촌형제의 자식)’, ‘사돈의 八寸(남이나 다음 없는 먼 인척)’ 등의 관련어휘가 있다.

5. 행정구역 관련 한자어

한자어 중 몇몇 語素는 행정구역과 관련한 의미를 나타낸다.

1) 洞

《說文》에 “疾流也.”라 하여 ‘아주 빠른 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班固·西都賦》에 “潰渭洞河.”라 하였다. ‘洞’은 명사로 ‘동굴’의 의미도 지니는데, 《素問·四氣調神大論》注에 “洞，謂中空也.”라 하였다. 한국어에서 ‘洞’은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마

을단위의 지역구를 일컫는다.

[예83] 退溪先生舊宅在於西小門洞.

[예84] 청학동이라 이러흔 디방에 산 골지기 마다 둔집흐야 (매일신문-1898)

[예83]에서 “퇴계선생의 구택은 서소문동에 있다.”의 ‘서소문동’과 [예84]의 청학동(청학동)에서 ‘동(洞)’은 행정구역의 단위로 사용되어 ‘동네’의 의미를 지닌다.

2) 面

《說文》에 “顏前也.”라 하여 ‘얼굴 앞부분’을 의미한다. 《戰國策·趙策四》에 “老婦必唾其面.”(이 늙은이가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겠다.)이라 하여 ‘面’의 본의는 ‘얼굴’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面’은 파생되어 ‘향하다’, ‘표면’, ‘방면’, ‘곡물의 가루’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面’은 한국어에서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화개면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서단에 위치한 면이다.”와 “정부는 농업 진흥을 위해 면 단위의 농민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를 들 수 있다. 이렇듯 ‘面’은 한국어에서 군(郡)에 딸린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몇 개의 리(里)로 구성되는데 중국어에는 없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행정구역 명칭과 관련한 語素 ‘道’, ‘市’, ‘邑’, ‘里’는 중국 역사상 행정구역으로 사용되었거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예로, ‘道’는 중국 역사상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대(唐代)에는 지금의 ‘省’에 해당했으며 청대(清代)와 민국(民國) 초년에는 각 ‘省’을 몇 개의 ‘道’로 나누어 사용하였다.⁹⁾ ‘市’는 현재 중국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邑’, ‘里’ 또한 ‘고을’과 ‘마을’의 의미를 지니므로 행정구역과 관련 있는 語素로 볼 수 있다.

9) ‘Daum’ 중국어 사전 참조.

Ⅲ. 한국 한자어의 특징 小考

한국 한자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나 오랜 세월 한국에 정착돼 사용되면서 본래의 한자 뜻과는 상이한 한자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한자를 형성해 사용되기도 한다. 한자의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었거나 한국에서 의미가 새롭게 생겨난 한자는 한국문화와도 결합하며 새로운 의미의 語素가 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다시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구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새로운 語素로 구성된 한국 한자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한자 중 그 의미가 전이 또는 확대나 축소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주로 한국문화와 결합하며 독특한 한국 한자어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函’과 ‘契’ 등을 들 수 있는데, ‘函’은 원래 ‘상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결혼풍습과 관련하여 ‘혼인 때 남자 쪽에서 각종 예단과 婚書紙를 담아 여자 측에 보내는 상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契’는 원래 ‘계약’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협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원래 한자의 뜻에서 축소된 형태로 한국문화와 결합된 한국 한자어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 쓴 경우로 ‘査’ 등을 들 수 있다. ‘査’는 원래 ‘뗏목’을 의미하는 한자어였는데 후대에 ‘검사하다, 조사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국어에서 ‘사돈’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한자 ‘査’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頓’은 ‘조아리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예의를 지켜야 할 ‘사돈’ 간에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나, ‘조사하다’의 ‘査’를 ‘사돈’에 사용한 것은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 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셋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한자와 모양이 같은 경우로 이는 한국어에서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중국한자와 모양이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太’는 우리말에서 ‘콩’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자 ‘太’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한자를 만든 것으로 우연히 중국 한자와 같아진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媵’ 역시

중국 한자를 차용해 사용한 것이 아닌 우리말의 ‘오라비’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 ‘嫻’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중국 한자 ‘嫻(諳)’과 같은 형태로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없는 한자로 ‘嫻’ 등을 들 수 있다. ‘嫻’ 한국어에서 ‘시집’ 또는 ‘남편의 집’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시택’과 관련 있는 다양한 어휘를 구성하는 語素로 사용되나 중국에는 없는 한자어이다. 그 외 ‘돌쇠(鬚釧)’의 ‘돌(鬚)’ 등을 들 수 있는데, ‘돌(鬚)’은 ‘돌쇠’ 외에는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으므로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한자어는 이외에도 일본에서 기원한 일본제 한자어를 들 수 있는데, 일본제 한자어는 조선 후기 개혁 운동과 문호 개방을 통하여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로 근대 외교의 산물로 볼 수 있는데, 원 한자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IV. 나오기

본문에서는 한중 한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사용되나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로 ‘便’과 ‘客’ 등을 들 수 있다. ‘便’은 한중 공통의미 외에 한국어에서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과 ‘방향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향을 갖는데, 이는 자주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예로 ‘男便’, ‘女便(네)’, ‘왼편’, ‘오른편’과 방향을 나타내는 ‘동편’, ‘서편’, ‘북편’ 등이 있다. ‘客’은 한중 공통의미 외에 한국어에서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뜻을 나타낸다. 예로 ‘객담하다’, ‘객소리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자에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한자어로 ‘函’, ‘契’, ‘柵’, ‘淸’, ‘藥’, ‘太’, ‘吐’, ‘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한자어는 語素로 사용되어 독립적으로 단어를 이루거나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데, 원래 한자의 의미에서 한국 문화나 풍습이 결합되어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거나 혹은 한국 한자어로 사용되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부 한국 한자어는 성씨나 사람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지칭하거나 출신지역 또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사용되는데, ‘哥’, ‘宅’, ‘前’ 등의 語素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 친인척 관련 한자어는 한국어에만 그 의미가 사용되거나 형태가 존재하는데, ‘查(頓)’, ‘嫂’, ‘甥’, ‘妹’, ‘寸’, ‘媿’ 등의 語素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련된 한자어 중 일부 語素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데, 예로 ‘洞’과 ‘面’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한자어는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의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어 생겨나거나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들로 한자의 상용 의미와는 다른 한국 고유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로 볼 수 있다. 한국 한자어는 語素를 중심으로 의미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段玉裁[清],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文康 著, 《兒女英雄傳》, 上海古籍出版社, 1990.
 沈約 撰, 《宋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墨翟 지음/이운구 옮김, 《墨子》, 길, 2012.
 莊子 지음/김창환 옮김, 《莊子》, 을유문화사, 2012.
 孫子, 《孫子》, 商務印書館, 1921.
 김필수 옮김, 《管子》, 소나무, 2006.
 정광, 《역주 번역 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2006.
 최동권 외, 《(譯註)清語老乞大新釋》, 박문사, 2012.
 소혜왕후/구인환 엮음, 《내훈》, 신원문화사, 2004.
 曹氏 지음/전형대, 박경신 共譯, 《내훈》, 예전사, 1991.
 백두현, 《현풍곽씨인간주해》, 태학사, 2003.
 이준영, 홍윤표/洪允杓 解題, 《國漢會語》, 太學社, 1986.
 손수, 《唐詩三百首》, 임동석 옮김, 동서문화사, 2010.
 국립국악원전통예술진흥회 편저, 《가곡원류》, 은하출판사, 1989.
 丁度 等撰/方成珪 考正, 《集韻: 附考正》, 臺灣商務印書館, 1968

- 陳彭年 撰, 《廣韻》, 臺灣商務印書館, 1968.
范曄 撰, 《二十五史·後漢書》, 二十五史編刊館, 1955.
洪舜明 編/康遇聖 著, 《(原本)倭語類解; (原本)蒙語類解; (原本)捷解新語》, 大提閣, 1985.
洪聖源 撰/成白曉 譯註, 《註解千字文》, 傳統文化研究會, 2001.
柳根(朝鮮),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흥문각, 1992.
徐鍇 撰, 《說文解字繫傳》, 中華書局, 1987.
《捷解蒙語; 蒙語類解》,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6.
《譯語類解》, 흥문각, 1995.
《계축일기》, 전규태 주해, 범우사, 2005.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2004.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漢語大詞典》,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出版社.

그 외 자료: 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ccl.pku.edu.cn> (北京大學中國言語學研究中心)
15~20세기 국어 데이터베이스 전산 자료

【中文提要】

漢字作為世界寶貴的文化遺產, 它至少有數千年的歷史了。漢字產生於中國, 比較容易被其他民族所借用, 如韓國, 日本和越南都有用漢字書寫的歷史階段。並且漢字對周邊國家的文化及語言的產生有巨大的影響, 從而形成了一個共同使用漢字的漢字文化圈, 在韓國、日本和越南, 漢字被融合成自己語言的文字。在我國, 近幾十年來漢字的使用頻率越來越少, 而在韓語中使用了大量的漢字詞彙。本文主要以韓語詞語中固有意義的漢字為研究對象, 試圖為讀者提供一些韓語固有意義的漢字信息。漢字是屬於表意文字的語素音節文字。漢字可說是一個文字符號紀錄一個語素的意義。本文先從韓中詞彙的語素中把不同意義的語素或者只有韓語而沒有漢語的語素找出來, 再進行分析和研究。

韓語中固有意義的漢字可分為五個大類。

1. 韓語專用語素的漢字

1) 便

‘便’，《說文》：“安也。人有不便，更之。”‘便’，韓中詞語中有主要共同語素義。如，1.方便，便利 2.方便的時候或順便的機會 3.非正式的，簡單的 4.屎或尿 5.就、則。‘便’，韓國固有語素義有‘一方’、‘方向’義。此外，還有‘客’。

2. 包含韓國文化習俗的漢字

‘函’中國有‘包含，含有’義。引申為‘匣子、箱子’義。韓國有結婚時，新郎送給新娘的箱子義。箱子裏有采緞、婚書紙和禮物。此外，還有‘契’，‘柶’，‘清〔青〕’，‘藥’，‘太’，‘吐’，‘周’。

3. 加在姓名或陳述一個人出處的府宅後面的漢字

這些漢字有‘哥’，‘宅’，‘前’。

4. 有關親屬的漢字

這些漢字有‘查(頓)’，‘媳’，‘嫂’，‘妹’，‘寸’等。

5. 有關行政地區的漢字

這些漢字有‘洞’，‘面’。

【主題語】

한자, 한국 한자어, 통시적, 어소, 의미, 비교
漢字, 韓語 漢字詞, 語素, 意義, 比較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